

불교 등록문화재 겨우 1건

등록문화재 교계 현주소

문화재청은 근·현대 건조된 조형물들을 영구히 기록·보존하기 위해 '2006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과 스님들의 마인드 부족 때문일까? 불교관련 등록문화재는 단 1건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 기독교 관련 등록문화재는 전체 등록문화재 267건 중 1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학술자료 제공과 유사시 수리·복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쇄물과 전자기록물(CD, DB) 등을 이용해 이에 대한 자료를 영구히 기록·보존하는 작업으로 문화재청의 기간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사업은 대상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 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당해 문화재 강좌가 열림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교육효과도 고취시킬 수 있다. 불교계의 등록문화재 현주소를 살펴본다.

총 267건 중 기독교 관련 100건 넘어

'서양양식' 이란 편견과 무관심 '원인'

불교계, 등록조건 갖춘 곳 50여곳

현재 등록문화재는 269건이 등록돼 있으며 그중 불교계 등록문화재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사찰은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현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개화기 이후 또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불사 불'에 따라서 사찰과 포교당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간단하다. 근대문화유산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아닌 '서양 문명 양식'이라는 스님들의 편견과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등록 현황에 콤플렉스를 가진 기독교계의 선점노력 등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사찰이나 포교당 등만 보더라도 해충과 습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보존·관리가 시급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에 나서야 하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존·관리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불교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약 5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주임은 "1920년대를 거점으로 세워진 도심포교당인 △용주사 수원포교당 △통도사 창녕포교당 △해인사 거창포교당 △건봉사 고성포교당 △금산사 전주포교당 등이 등록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포교당은 근대의 큰스님들의 다양한 일화나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 불교 건축미 등 등록의 필요 충분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1935년 창건된 거창포교당은 근대 한국 불교의 선종을 진작시킨 성철·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군산 동국사 대웅전은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현재 등록문화재 64호로 지정돼 있다.

■ 등록문화재 사업이란?

등록문화재사업은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시설물·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역사유적 등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기간사업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조물·조각·회화·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문

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도 지정문화재에 비해 간단하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취지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문화재의 종별 명칭·연혁 등을 첨부한 문화재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암·일타 스님 등이 주석했던 도량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건물.

이밖에도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에 창건된 내장사 대웅전이나 은해사의 영전포교당 등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중요성과 가치 인식 시급

요건을 갖춘 다수의 불교계 건조물을 등록문화재화 하기 위한 대책은 뭘까.

우선 스님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관련 문화재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종단차원이 행정지침도 있어야 한다.

즉, 등록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불교계 전체의 마인드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광대 건축학과 박상현 교수는 "전통 문화에 익숙한 불교가 근대 건축물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의식이 강해 등록문화재를 소위 '현대 건축 조형물'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문제"라며 "종단과 사찰들이 연계해 근대(1950년대) 이전 건조된 사찰이나 포교당, 불교 조형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 등록문화재 등록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5>

월드컵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6월 17일 열린 대 스웨덴전에서 한국은 알프스 고개를 넘지 못함으로써 아쉽게 G조 3위에 그쳤다.

하지만 붉은 악마를 비롯한 4천 8백만 국민들은 '16강 진출 실패'란 순간적인 실망감을 극복하고 열심히 싸워준 대표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줌으로써 한층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줬다.

전반전을 놓치고 후반전부터 응원을 하는 경우 또는 TV를 켜고 응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의 내용이나 승부에 영향을 미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영향이 없을 듯하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의 조그만 행동에

하지만 이처럼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요묘한 현상도 많다. 우주의 어떤 별에서도 지구에서와 같은 나비효과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조그만 행동,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을

을 아무 생각 없이 켜는 것,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이 지구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환경론자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때 사회적 이슈였던 천

성산 터널 문제가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쪽의 주장에도 위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져 맞물려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이 속에서 나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질 때, 나비

나비의 날개짓이 허리케인 만든다는데

'열렬한 응원'이 경기에 영향 주지 않을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TV를 켜고 한국선수들을 응원한다면 미세하겠지만 경기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상상은 '나비효과'를 연상케 한다.

나비효과는 '복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나비 효과는 기상변화와 같이 풍속, 기압, 기온 등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아주 조그마한 국소적인 요인이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해서 알아낸 효과다.

이러한 나비효과는 <금강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비교했을 때 지구라는 별은 항하사의 모래알보다 작다.

효과를 일상에 접목시켜 보는 어떨까.

이런 나비 효과는 이전 오백년 전, 인류에게 빛을 주신 부처님의 인연법의 한 가지 모습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아침 예불 시간마다 불자들이 외우는 아름다운 찬미(예불).

즉 '시라삼세 제망찰해'의 제망찰해야 말로, 삼라만상의 '원인과 결과'인 인연법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다.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연법에 의해서 연결된 우주의 모습이 마치 제석천 궁전을 덮은 그들의 바다와 같다'고 나할까.

나비의 움직임이 뉴욕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나의 선한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사는 지구별을 극락정토로 만드는 하나하나의 '나비효과'임을 명심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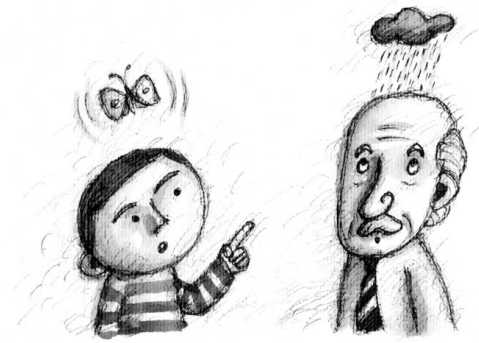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혜택 부여

종단 행정지침 마련 등록유도를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印象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印象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印象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도 돌아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 각종 지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을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을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때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몰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생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빙의 되어 눈에 백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황산처럼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중체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 2006. 7. 6(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10명)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우울증, 신경불안증, 정신병, 공포증, 기관지 천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각종 피부병, 불임증, 불면증, 말더듬, 알콜중독, 무통분만 치유 비법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